



추

김수미 **창** **유관순 열사가**

박동실 作, 장월중선 傳

일시 | **2019.3.1** (금) 오후 4시

장소 |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후원 | 부암아트홀

전석 20,000원 (문의 010-9897-8655)



올해는 기미년 독립만세를 외친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의 억압에 항거하여 민족의 독립을 이뤄낸 전국적인 사건이기에 100주년의 의미가 더욱 크다. 삼일절 기념식을 비롯한 여러 행사 중, 판소리 <유관순 열사가>는 오늘에 꼭 맞는 공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민족의 영혼까지도 파괴하고자 했던 일제의 창씨 개명과 문화말살정책을 기억한다면, 판소리 <유관순 열사가>의 탄생은 다른 차원의 독립운동이자 문화적 승리인 것이다.

본 작품의 창작자는 서편제 소리의 명창 박동실(1897~1968)이다. 일제 강점기에 여러 협률사에서 창극 활동을 주력하였고, 당시 “광주소리”의 중추로써 후학들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광복 후 “열사가” 계통의 창작판소리를 만들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각 학교를 중심으로 공연하였다. 유관순의 일대기를 다룬 70분 분량의 <유관순 열사가>는 작창 시에 별명이 “녹음기”였던 제자 장월중선(1925~1998)을 옆에 두고 바로 가르쳐 익히게 하였다. 박동실은 1950년 서울 수복 이후 월북하였다.

장월중선(1925~1998)은 전남 곡성 출신의 명창이다. 판소리를 비롯하여 악기무에 두루 능통했던 장월중선은 박동실에게 서편제 심청가와 유관순 열사가를 배웠다. <유관순 열사가>를 장녀 정순임(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흥보가 보유자)과 막내제자 김수미에게 전했다. 장월중선은 작고하기 불과 1,2년 전인 1996~1997년에 ‘후대에 전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김수미에게 가르쳤다.

김수미는 판소리에 관한 한 참 진지한 소리꾼이다. 판소리에 대한 그의 지적 호기심은 그동안 다양한 결과물로 나타났다. 전통판소리 5마당 학습과 발표, 고제 소리 복원 연주, 판소리 음악의 실기를 밝히는 연구와 논문, 전통판소리 작창법에 근거한 창작판소리 만들기 등이 그것이다. 실기와 이론과 창작을 한 카테고리로 두고, 판소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범답안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을 김수미는 한결같이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업은 의미있는 그 무엇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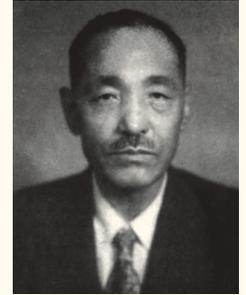
김수미 맏 <유관순 열사가>는 시대정신을 담고자 했던 박동실과 스승의 소리를 오롯이 전하고자 했던 장월중선의 일구월심이 실현되는 무대이다. 박동실은 나라를 잃은 애통함과 독립을 향한 비장함을 판소리 특유의 사실적 묘사와 이면의 극대로 작창하였다. 사실과 그에 따른 불입새, 악조의 활용 등은 박동실이 작창에 얼마나 능했는지를 가늠케 한다.

<유관순 열사가>는 전통판소리 5마당 이후, 일제시대의 핍박과 고통을 통과한 소리꾼들이 탄생시킨 판소리 문화 유산이자 역사적 산물이다. 이번 기미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을 시작으로 판소리 <유관순 열사가>가 해마다 불려지길 기대해 본다.

2019년 3월 1일

이소영

음악평론가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장
뉴힐하우스콘서트 예술감독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학원 음악학박사
저서 『20세기 한국음악의 혼종적 음악하기』, 『나는 다르게 듣는다』 외 다수



박동실

(1897~1968)

전남 담양 출신의 서편제 심청가 명창이다. 광복 후 “열사가” 계통의 창작판소리를 만들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각 학교를 중심으로 공연하였다. 1950년 서울 수복 이후에 월북하여 1968년에 작고하였다. <유관순 열사가> 작창 시에 기억력이 좋은 제자 장월중선을 옆에 두고 바로 가르쳐 익히게 하였다.



장월중선

(1925~1998)

전남 곡성 출신의 명창이다. 판소리를 비롯하여 악기무에 두루 능통했던 장월중선은 박동실에게 서편제 심청가와 유관순 열사가를 배웠다. <유관순 열사가>를 장녀 정순임(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4호 흥보가 보유자)과 제자 김수미 등에게 전했다.

김수미 **창** 유관순 열사가

- 사회 | 김혜정
- 소리 | 김수미
- 교수 | 조용복
- 영상 | 조상

곡목순서

- 충남 천안 삼거리애 (진양조)
- 어려서부터 커날적애 (단중모리)
- 창창한 만리건곤 (진양조)
- 천성이 분래 활발하여 (단중모리)
- 그때여 고종황제께서는 (중중모리)
- 때는 벌써 이월 그림 (자진모리)
- 그 날 즉시 길을 떠나 (중모리)
- 적적이 홀로 앉어 (진양조)
- 날이 차차 밝아지니 (자진모리)
- 허허 이것이 웬일이냐 (중중모리)
- 붙들리어 가는구나 (중모리)
- 이놈아 니 나를 어찌 보느냐 (단중모리)
- 섯다 절럭 펴씩 주갠더니 (중모리)
- 그때여 관순이는 (단중모리)
- 내 죄가 무슨 죄인고 (진양조)
- 위엄이 늠름허다 (세마치)
- 관순이 분기 충천하여 (엇모리)
- 좌우에 일본 검판사는 (중모리)
- 어화 청춘 소년들아 (중중모리)

총 소요시간 | 약 80분



소리 김수미

목포여자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국악과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국악과 박사과정 수료

장월중선 사사(1986~1997) _ 박동실제 심청가, 유관순 열사가

21C 광주전남지역개발협의회 장학생 선발
유재하 음악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서울대학교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발

공연_ 박동실제 심청가 완창 발표회(2017) 및 국내외 공연 참여
연구_ 7인의 작품을 통해 본 21세기 판소리 창작 경향 연구(2017. 동양음악42집, 서울대학교)

외 다수 논문 발표
작창_ 판소리로 듣는 옛이야기 "재미네골"(2003) 외 다수 작창 및 발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
(사)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 이사
판소리학회 이사
부암아트홀 국악예술감독



교수 조용복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전국고수대회 대명고부 대상 대통령상 수상
전주완산국악제전위원회 이사



사회 김혜정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영상감독 조상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과 교수

기획 | 한송이
2D, 3D 모션그래픽 | 신다은
프로세싱 | 박민혁 이현우
프로듀서 | 최찬미
진행 | 신한별

〈유관순 열사가〉 판소리 사설

박동실(1897~1968) 作
장월중선(1925~1998) 傳
김수미 唱

아니리 때는 1904년 국운이 불행하여 조정은 편벽되고 왜적이 침입하니 간신이 득세로다. 보호조약 억제하니 억울한 한일합방 뉘 아니 분개하며, 매국적 부귀탐욕 일시 영화 꿈을 꾸어 조국을 어찌 돌아보리. 반만년 우리역사 일조일석에 무너지고 삼천만 분한 설움 삼월 일일 폭발하니 피끓는 독립투사 도처마다 일어나 의를 세워 분투혈 제, 유관순은 누구인고? 심세 어린 처녀 근본부터 이룰진대

진양조 충남 천안 삼거리에 수양청형 능수버들은 우리 나라에 유명커든, 지기상합 다시 푸르러 구목천 지령리에 평화로운 유씨 가정 관순처녀 태어나니 일대명전 순국처녀 도움없이 삼켰으랴! 계룡 산수 장현 기운 지령리에 어려있고 금강수 흐르난 물은 낙화암을 돌고 도니, 삼천궁녀 후인인지 귀인자태 아름답고 월궁항아 환생헌지 뚜렷한 그 얼굴은 의증지심이 굳고 굳어 미간에가 어렸으니 일대 영앙이 분명구나.

아니리 그의 부친 유증권씨는 성심이 청렴하사 부귀공명을 원치 않고, 농업장생 글을 읽어 가는 세월을 소요하니, 정대한 예문은 군자의 덕행이요, 그의 아내 이씨 부인 또한 만사가 민첩하사 예국 예절이 능란하니 뉘 아니 정대하리오. 자녀간 사남매를 금옥같이 길러내어 부모의 유전이지 모두 다 현숙한지라. 더욱이 관순이는

단중모리 어려서부터 커날적에 다른 아이들과 다른지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기에게 화목하기 예의 염치 기거 좌편 뉘 아니 칭찬하며, 유다른 그 인정은 사랑웁고 따뜻하야 사람마다 정복되고 정대한 그 마음은 신의가 분명구나. 때는 마참 봄이 되어 동기들과 어깨 끼고 꽃노래 나물 캐기 밤이면 슬래 잡기, 가는 세월 어느듯이 곱게 곱게 자라날 제

아니리 이렇듯 지낼 적에, 하루는 관순 처녀 생일이라. 관순을 옆에 앉혀 좋은 음식을 먹일 제

창조 바라보던 그 부친은 별안간 한숨을 길게 쉬며 나라 없는 장탄수심 두 눈에 눈물이 듣거니 땀겨니 흐르니

아니리 영특한 관순이는 부친 뜻을 어찌 모르리오. 부친을 만단으로 위로하고 그날부터 어린가슴 애국 정열 굳고 굳어 가슴 속에 맺힌지라. 세월은 흘러가고 관순은 차차 장성하여 소학관을 마치고 서울 이화학당 고등과에 입학하니 이곳은 변화한지라. 세계여론과 유언비어가 떠돌고 매국한 무리들이 왜놈의 세력의 힘을 믿고 의기가 양양하여지니 뜻있는 지사들은 일성장탄 해외로 망명을 연속하고 이 강산 이 땅은 흉몽 중에 잠겼드라. 그때여 관순이는 이화학당 후원에 홀로 앉

어 자탄을 허는디

진양조 창창한 만리건곤 호호망망 멀어있고, 애담을사 이 강산에 청춘남녀를 부르건마는 힘이 없는 우리민족 호소할 곳 바이 없어 아무리 슬피운들 주인없는 이 강산에 나라없는 백성이라. 옛 성현이 이르기를 군신유의 중한 법은 오륜 중에 으뜸이요, 부자유친 천륜으로 앞을 서지 못했으니 이 모두가 대의분별 하심이라. 내가 비록 여잘망정 배달혈통이 그 아닌가? 천창만검 살기 중에 진을 돌려 싸우기는 장부같이 못하여도 내 한 목숨이 끊어져서 국민 의무를 지키는 것은 어찌 남녀가 다를소냐! 울울한 이 내 심사 하나님께 맹세하고 천참만옥 될지라도 한번 먹은 이 내 심사는 변할 리가 없으리라.

아니리 이렇듯이 슬피우니 두 눈에 눈물만 흘러 앞섰을 다 적시고, 구곡간장 타는 가슴 혼문수참 되었더라. 이화학당으로 돌아와 관순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배움이 없어 내 나라를 잃었으니 많은 연구와 공부에 열중하리라.

단중모리 천성이 본래 활발하여 만사를 달통하고 뛰어난 그 총명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일을 깨우치고 한번 일러 하는 말은 일호차착이 없는지라. 이화학당 새 봄빛은 꽃다운 우리처녀 동방예의가 분명하고 언중유순 그의 덕은 여러 선생 칭찬이요, 자비한 그 인정은 친구들게 감탄이라. 휴가일에는 빨래하기 사이사이 자습이요, 기숙사 실내 안을 남의 손 댈 새 없었거울 같이 소쇄하니 일행처사 맘과 같이 정결하고 깨끗하다. 위생에 중한 책임 건강에 관념이요, 부녀부 정결함은 온 가정에 근본이라. 이 강산 이 땅위에 부족한 우리 위생 관순은 미리 알고 여유 시간 소쇄함을 의무라고 생각한다.

아니리 이렇듯 세월은 흘러 관순 나이 십육세라. 그때여 고종황제께서는 우리나라 조선조 제26대 왕으로서, 선왕인 철종이 세자 없이 돌아가시자 조대비가 옥쇄를 잡고 영조의 현손이자 흥선 대원군의 둘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고종은 왕위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것이었다. 이때에 일본은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빼앗고 고종을 덕수궁에 머무르게 하여 세월을 보내는데, 그것도 모자란 일본은 1910년에 한일합방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완전히 저희 손아귀에 넣고 고종황제를 죽일 음모를 꾀하던 중

중중모리 그때여 고종황제께서는 오백년 사직을 잃고 분함이 장천히되 양약을 이무 아신고로 백성의 생명을 더욱 아껴 가진 지옥 십년간에 외로운 덕수궁에 세월을 보내실 제, 우리 간신들은 왜놈의 세력을 더욱 추세하여 공훈이 씩씩 올라가고, 이완용 송병준 만고 역적놈들 부귀가 더욱이 혁혁하여지되 심중에 있는 근심은 고종황제 생존하심이라. 기회를 자주 엿보더니 슬프다 고종황제 우연히 득병하시니 이완용 정성이 있는 체 허고 좌우를 물린 후에 탕약을 이완용 손에 거쳐 고종황제 잡수시니 그 가운데는 무슨 의무와 비밀이 있는지라. 병세는 더욱이 위중하여 놓고 일지 못하시더니 그대로 황제는 승하신다. 삼천리 이 강산에 군부상사 슬픈 설움 원한이 가득하고 팔도각골 면면촌촌 국상이 발표되니 곡반 참배소의 백관 애악 애절이 분분 인산 위문을 허라고 구름같이 모아들 제, 전조 재신들은 대한문 너른 거리에 꺼적 자리에 베투 입고 곡반통곡하며 "원통하오, 원통하오!" 애끓어 슬픈 설움 원한이 함께 뭉쳐 만호장안에 백성들은 분기

가 만면 혈기방장 청년학도 주먹이 불끈 불끈 어깨가 으씩 으씩 그저 장안이 수군수군 ‘여보 이게 웬일이요? 고종황제께서 암만 생각하여도 간신의 피해를 당하셨지! 이 놈들 죽여야지!’ 가 가호호 거리거리 의견이 분분 일어날 제, 각처 교실 내에서 무슨 비밀이 갔다 왔다 수선 수선 무거운 침묵 속에 민족 자결을 응하여 독립운동 시위행렬 전국적으로 일어날 제, 손병희씨 선두 되고 여러 수반 의인들은 차서를 분별하여 태극기 선언서를 만단같이 준비한 후 삼월일일 열두 시에 거사허자는 약속이라.

아니리 때는 2월 28일 민족대표 서른 세명이 손병희씨 댁에 모두 모여,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하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연후에, 미국 대통령과 파리 강화의 각국 대표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보내고 대의날을 기다릴 제

자진모리 때는 벌써 이월 그믐 밤이 적적 깊었나디 각처 수반 의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명일 거사 준비할 제 어느새 먼동이 히면 원산이 쫓긋 쫓긋 동녘에 해가 뜨니 삼월 일일이 오날이라. 파고다 공원 앞으로서 구름같이 모아 들어서 약속 시간 기다릴 제, 벌써 열두시 정각을 땅! 땅! 선언이 끝이 나자 태극기 번뜻 북악산이 우루루루 “대한독립만세” 장안이 으근으근으근 남산이 뒤꿍어 삼각산이 떠나갈 듯 의분기창 청년학도 숲을 뚫기 나아갈 제 어디서 총소리 팡! 칼날이 번뜻 쓰러지는 우리 동포 죽어가면서도 “독립만세” 산지사방 만세소리 연속하여 모아들고 포악 무도 일본헌병 거리거리 길을 막고 함부로 난타하야 총으로 쓰고 칼로 쳐서 선머리 턱턱 쓰러 쳐도 그저 물밀 듯이 피 끓는 청년들은 주먹 쥐고 우루루루 왜놈들 냐다 짓 꺾꾸러져 좌우에 총소리 팡! 팡! 팡! ‘슬프구나 우리나라 당당한 의무연마는 무도한 왜놈들이 함부로 총을 쏘니 주검이 여기저기 수라장이 되었구나.’

아니리 이렇듯 수라장 속에 몇몇 학생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와 이화학당으로 돌아오니 그때에 교장 프라이 미국선생이 창백한 얼굴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무사히 돌아온 학생들을 반기하며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 준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였소. 일본은 언젠가 큰 벌을 받을 것이요.” 한참 이렇즈에 일본 헌병들이 들이닥쳐 독립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찾아내라고 독촉을 하는 한편, 총독부에선 각 학교 임시 휴교의 명령을 내렸었다. 관순이도 하릴없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디

중모리 그날 즉시 길을 떠나 구목천 지령리에 지체없이 내려와서 부모님께 아뢴 후에, 근동사람 모두 모아 선언서를 발표헌 후, “우리는 때가 왔으니 앞을 서서 나갑시다.” 모인 중 조인원이 주먹을 들고 일어나고, 관순은 각처 연락 곤한 줄도 모르고, 천안읍 김구응을 찾으니 이 또한 동지라. 여러 학교를 방문하고 청주 진천 유림 대표 모두 찾아 약속한 후, 면면촌촌 가가호호 방문하여 부인들을 충동하느라 주야베도 허는구나

아니리 이렇듯 활동할 제, 이러한 결과로 동지들을 얻어 서울에서는 양력 삼월 일일자로 했으나 여기에서는 음력 삼월 일일로 정하고, 관순은 그날 밤 매봉산에 올라가 봉화를 놓아 군호를 올린 후에 홀연히 앉아 자탄을 허는디

진양조 적적히 홀로 앉아 오늘 일을 생각하니 무인공산에 밤이 깊었나디 밤새 소리는 부웅 부웅 바람은 나뭇가지를 싹 스쳐간다. “물나니 청산이여, 고국흥망을 누라 알리로다. 반만년 우리역사 일조일석에 무너지고 가진 지옥 십년간에 호소할 곳이 전히 없이 명일 대일을 잡아 일어나니 천지 신명은 살피소서.” 이렇듯이 자탄을 허되, 무심한 청산은 아무 대답이 없고 서천 하늘에 별빛만 기울어졌네 “아이고, 원통하야라!” 구곡간장 장탄으로 밤이 깊어 가는 줄을 모르는구나.

아니리 이렇듯이 자탄을 헐 제, 먼 촌에 개 짖는 소리 들릴 적에

자진모리 날이 차차 밝아지니 음력 삼월 첫날이라 아니장 네거리에 십육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다 끼고 갔다 왔다 수천명 군중들은 연속하여 모아들고, 한편 지령리에서 태극기 서로서로 조용조용히 나눠줄 제, 어느새 열두시 오정시라. 관순이 높이 서서 선언서를 낭독한다 “반만년 우리역사 왜놈들께 무고히 뺏긴 십년에 민족자결을 응하여 독립운동 시위행렬 허자”는 선언이 끝이 나자 태극기 높이 들어 “대한독립만세 만세 만세” 천지가 뒤덮는 듯 강산이 뒤꿍어 매봉산이 떠나갈 듯 수천명 군중들은 시위행렬 전진할 제, 어디서 총소리 팡! 김구응 꺾꾸러지니 관순은 열이 북받쳐 “이놈아 이놈아 개같은 놈들아, 총은 너희가 왜 쓰느냐? 저놈들 죽여라!” 우 달려들어서 파견소 문짝을 후닥닥 찌꺼 찌꺼 때려부시니 왜놈이 겁내어 담 너머로 도망가고 어디서 자동차 소리가 우루루루 천안 헌병 본부에서 응원대 쫓아들(어)으며 총소리 쿵쿵 유증권 내외가 꺾꾸러지고 조인원이 쓰러지니 관순이 눈이 캄캄 우루루루 달려들다 칼날이 번 뜻 또 쓰러지니 관순이 기가 막혀

중중모리 “허허 이것이 웬일이냐? 이것이 웬일이여! 우리 민족 빈손으로 독립허자 허였거날 무삼일로 총을 쏘아 이 모양이 웬일이냐?” 섰다 꺾꾸러져 떼구르르르 궁그러보고 가슴을 쿵쿵 치고 머리도 찌꺼 찌꺼 부모님 시체를 안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천추원한 품으시고 영결총천 하셨으니 장엄한 이 죽엄은 국민 의무가 당연허나 철천지 맺힌 한을 어느 때나 풀으리까? 예끼 천하 몫쓸놈들 금수만도 못하구나, 포악무도 장구허리야! 나도 마저 죽여라.” 우루루루

아니리 달려들다 헌병 발길에 걸어쳐여 거꾸어졌었다. 관순이 분한 마음에 부모님 시체를 안고 죽기로 작정허니, 그때 마침 우리 동지 하나가 관순을 피신시켜 놓으니, 관순이 거기서 빠져나와 저의 집으로 돌아와 관복 관석 두 동생을 만난 후에 헌병들게 발각되어 여러 동지들과 하릴없이 끌려가는디

중모리 불들리어 가는구나 끌리는 포승줄은 앞뒤로 얽어매고 손에는 수갑이라. 흐트러진 머리채는 두 귀밑에 늘어지고 비와 같이 흐린 눈물 옷깃에 모두 다 사무친다. 아니 장터 사람들은 모두 나와 울음을 울고 세상을 모르고 누워 있는 여러 동지 부모 양친은 고요히 잠이 들어 아무런 줄을 모르는구나. 관순이 망극하여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불효역시 관순이는 사세부득 끌려 가오니 죄를 용서 하옵소서.” 애꿎어 슬피 우니 흐린 눈물 피가 되고 한숨은 모아서 청풍이라. 청산도 느끼난 듯 관순은 오열하여 휘느러져 곱든 꽃은 이물어져 빛을 잃고, 뜻밖의 두견이는 피를 내어 슬피 울어 아월공산 어따 두고 진정제성 단장성 조국한이 깊었으니 네 아무리 미물이나 사

정은 날과 같이 천추원한 운다마는 사세가 부득이 되니 수원수구 어이 허리. 이렇듯이 울음을 울 제 포득한 일본헌병 성화같이 재촉한다 백여명 동지들은 칼 맞어 팔 못 쓰는 사람 총을 맞고 다리 절어 전통전동거리고 끌려간다. 의분은 장천에 닿어 있고 슬픔은 산하에 찼다. 어느새 일모도궁하여 박모에 들어설 제 천안읍을 당도하니 이곳은 헌병 본부이다. 위엄이 늠름 살기가 일어나고 의기가 만면하여 호령이 추상 같은지라. 관순은 노려보며 태연히 들어간다

아니리 이렇듯 태연히 들어갈 제 그때여 헌병대장이 관순이 목에 총을 딱 들이대며, “이런 조그만한 년이 그런 범난한 일을 할 리가 없어. 반드시 네 뒤에는 지휘자가 있을 터, 지도자가 누구인지 바르대로 아뢰어라.”

단중모리 “이놈아, 니 나를 어찌 보느냐? 내 나이 십육세라. 오천년 배달민족 우리 한국 처녀여를 죽는 것을 두려하여 개와 같은 네 놈 앞에 살기를 구할소냐? 총으로 든 칼로 치든지 양단간에 하려므나! 나 죽은 혼이라도 너희 나라 혼비중천 떠다니며 너희들을 몰살시켜 원한을 풀어보리라. 아나 이놈아 나를 썩 죽여라! 앞이를 와드득 와드득 두 주먹 벌벌 떨며 선도자는 네로대! 무도한 왜놈들이어서 급히 죽어라.”

아니리 이렇게 포악을 허여 놓으니 헌병대장 어이없어 관순을 다시 결박하여 공주 검사국으로 넘겼겠다. 그때여 관옥이도 시위행렬허다 붙들리어 그곳에 심문을 받으러 왔다가 두 남매 서로 만나게 되는구나.

창조 관순이 기가 막혀

중모리 섰다 절걱 펍씩 주삿더니 “아이고, 원통하여라 원통하네! 나라 없는 외로운 몸이 부모까지 이별하고 형제는 각기 감금되니 어린 동생들을 어이허리. 아이고 이 일을 어찌를 헐꼬냐.” 복통단장 성으로 울음 우니 그때여 관옥이는 아무런 줄을 모르다 “이 애 관순아, 그제 무슨 말이나?” “아이고 오라버니, 아니 장터 행렬 시에 양친이 다 돌아가셨소.” 관옥이 정신이 삭막하여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꺼지난 듯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두 눈에 눈물만 듣거니 맺거니 그저 퍼버리고 울음을 운다.

아니리 이렇듯 두 남매 붙들고 울음 우니, 악독한 일본 헌병들이 달려들어 각각 감옥으로 끌고 가는다

단중모리 그때여 관순이는 검사국에 심문받고 백여명 동지들과 옥으로 내려갈 제 악독한 일본헌병 총칼을 매고 새이새이 끼어서 감금이 엄숙하여 공주교를 열꽃 지나, 좌우를 둘러보니 남녀노소 수십명이 거리거리 늘어서, 서도 차고 눈물 흘려 장하다고 탄식한다. 그곳을 지나 감옥 앞을 당도하니 간수는 문을 열어 죄수를 받고 서류를 보아 명록 대신 번호를 써서 앞설에다가 붙여 각기 분방을 시킬 제, 그때여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각처에 벌어져 시위행렬이 연속이다. 포악무도 일본헌병 총으로 쏘고 칼로 쳐서 함부로 얹어 묶어 끌어갈 제, 분함은 하늘에가 사무치고 장엄한 그 죽임은 도처마다 물을 들어 흐린 피로 물들이니 아름다운 애국정열 장하고도 씩씩하다.

아니리 이때 우리 동포들 각처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다 붙들려 들어와 모진 고문과 악형을 당하여 죽어가는 동지들 수없이 많은지라. 한편 관순이는 공주 검사국에 불복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상고를 하였는가 보더라. 이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옮겨지니 관순이는 서대문 미결 감옥에 유치되는지라.

창조 그때여 관순이 적막옥방에 홀로 앉아 옥창밖을 내다보니 만리 창공에 구름만 담담하고 흐트러진 나라근심 원통하게 돌아가신 부모님과 여러 동지들과 어린 동생들 일을 생각하니 주연히 눈물을 흘리며

진양조 “내 죄가 무삼 죄인고? 부모불효 하였느냐? 살인강도 한 일 없이 음양작죄 아니어든 감금수옥이 웬일이냐! 죄가 있고 이렇진대 아무 여한이 없으려만는 나라 없는 민족이 제 나라 찾자는 게 그제 무슨 죄란 말이나? 당당한 의무면마는 세사가 모두 이렇듯가! 아이고 원통하여라. 이제 내가 죽어져서 외로운 혼백이 만리 창공에 흩어지고 만수청산에 일본토가 되면 만사를 모두 잊으려만는 무엇을 바래고 내가 여태 살아 있어 이 모양을 당하는구나. 옛날 고려 포은 선생은 나라 위하여 죽어 있고, 단종 때 성삼문씨 독야청청 절을 지켜 충직지 임명하여 군신유의 중하시고, 진주논개 평양계월 나라에 몸을 바쳐 대의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또한 사람이라. 고인만은 못하여도 인신지본의를 왜 모르랴! 이제 내가 죽는 것은 설참으나 사후 영결하신 부모님 초상 장례를 뉘 했으며, 철 모르난 어린 동생들은 뉘 집에서 자라날꼬? 분하고 내가 원통한 사정을 어느 뉘게다 하소를 허리.”

아니리 이렇듯 슬피 울다 의분이 복받치어 옥창문을 두드리며 독립만세를 삼창으로 냅다 질러놓으니, 그때여 우리나라 동지들이 수없이 붙들려와 각각 감방에 감금돼 있는지라. 관순이 외치는 소리에 여기저기에서 독립만세를 합창으로 불러놓으니 감옥안이 발끈 뒤집혔구나. 깜짝 놀란 간수들이 황급히 관순을 잡아 끌어내는다

세마치 위엄이 늠름하다. 예복을 입은 일본 재판사는 층계 우애가 높기 앉았으니 교만과 살기가 만면이라. 좌우편에 변호사는 우리 동포 죄를 감소시키려고 법률책을 이리저리 뒤집어보니 이는 선인이 분명하고, 모아 앉은 방청객은 겹겹이 모두 늘어 앉아 체결연도를 불량으로 담담하니 앉았구나.

아니리 그때여 검사가 관순을 쏘아보며 “너 이년, 너는 죄인의 몸으로 감방에서 소란을 피웠으니 그 또한 큰 죄이려니와, 대 일본국 천황폐하를 무시한 죄 더더욱 큰 죄로다.” 관순이 듣고 문답허되, “너희들에게는 천황폐하로되 나에게게는 철천지 대원수로다.” “저런 저런 발칙한 년. 네 이년. 네 죄를 생각하면 당장 처형이로되, 너 아직 어린고로 징역 칠년을 구형하노라.”

엇모리 관순이 분기 충천하야 “이놈 무엇이 어찌여? 우리 민족 빈손으로 독립허자 허였거날 무삼 일로 총살허고 감금수옥 헌단 말이 네 입에서 나오느냐?” 앉었던 의자 버썩 들어 우애를 보고 냅다 치니, 의분은 중천 법정은 뒤죽박죽이 되야 재판사 냇을 잃고 좌우 간수들도 어찌할 줄 모를적에, 모아 앉은 방청객은 의분이 복받치어서 무슨 말이 나올 듯 입만 딸짝 딸짝

아니리 하마터라면 여기서도 큰일 날 뻔 하였던가 보더라. 이리하야 관순을 다시 결박하여 검사실로 끌고 가는다

중모리 좌우에 일본 검판사는 관순을 잡아내고 전옥이하 간수장들은 일제히 늘어 앉아 추상같이 호령을 한다 “이년, 너는 일국의 백성이 되어 국법을 무시하느냐?” “미친 도적놈들 말 들어라. 당초에 너희 놈들이 보호조약을 억체하여 위협적 침략정책 우리 나라를 짓밟아 뺏고도 무삼 면목에 낫을 들어 그런 말을 허느냐? 나는 한국 사람으로 너희 법을 부인하노라!” “허허, 그년 당돌허다! 네가 어찌 당초 근본을 알겠느냐? 내 자서히 일러주지!” “무엇 근본? 흥 어디 말해봐라.” “너희 나라에 당파가 있어 보존할 길이 없는 고로 우리 병력을 다하여서 일종일로 전장함이 그게 모두 너희를 위함이라.” “오! 그 일로 말할진대, 너희 놈들이 간혹하야 우리 나라를 도적허자 근본이니 그건 더욱 흥측허지!” “무어 어째, 이년 또 들어봐라. 너희 군신이 합배하여 보호를 부탁하였고 화평을 허자는 것도 그게 모두 너희를 위함이라.” “어허 어째여, 뻔뻔허구나 왜놈들아. 그것은 너희 놈들이 우리나라 역적들과 공모하야 너희들 맘대로 하였으니, 우리 의사 안중근씨 이등박문을 죽인 후로 여순감옥에서 사허시고, 이준 선생은 배를 갈라 만국기예다 피를 뿌려 세계만국 경탄이요, 우리 동포 흐린 피는 도처마다 물을 들여 천추원한 맺힌 한을 너희도 응당 알 것이다. 쥐와 같이 간사한 놈들, 포악무도 일삼으니 아니 망허고는 안되지야.” “에이 그년, 천하에 독한 년이로다! 당장에 말 못허게 치려므나.” 때리고 달고 치고 물을 퍼싸나도 꿈쩍 달짝 앓고 더욱 정신이 씩씩하여지며 “왔다, 이 흥폭한 왜놈들아! 너희가 나를 짝짝 찢어 육장을 만들던지 동동이 가르던지 너희들 맘대로 하려니와 나의 굳은 마음을 못 뺏지야. 옛글에 이르기를 적국지수는 아국지수요, 아국지수는 적국지수라. 너희 놈들이 나를 죽이는 것은 흥폭한 너의 목적이요, 내가 이 자리에 죽난 건 당당한 나의 의무라 헐 것이니 당장에 목숨을 끊으려므나!” “에이 그년, 천하에 독한 년이로다!” 화덕예다가 불을 피워 쇠붙이예다 불을 붉게 달아서 살을 푹푹 찌르니, 기름이 끓고 살이 타져도 꿈쩍달짝 앓고 여전히 포악을 허는구나. “에이 그년, 단칼에 쳐 죽여라.” 칼로 찌르고 살을 점점 헤쳐노니, 아깝구나 우리 관순, 악형을 못이기어 죽어 가면서도 포악이라. 입만 달짝달짝 천추원한 품에 품고 아주 꺾꺾 명진허니, 피는 흘러 땅에 그득허고 피육은 점점 흘러졌네. 장허구나 순국처녀 몸은 죽장이 되었으되 의혈만은 살어 있어 깨끗한 그 죽엄은 만리창공에 높이 뚝구나. 장천도 느끼난 듯 일광도 빛이 없고 날아가는 새 짐승도 허공 중천에 떠돌고 고요하니 서서 있다. 여보시오 여러 동포, 이팔청춘 어린 처녀 나라에 몸을 바쳐 순국 열사 허었던 말, 나는 고금천치 처음이요. 반만년 역사 중에 아름다운 이 죽엄은 명전천추 그 아닌가, 어화세상 사람들아 만세의 혼께 축배허세!

중중모리 어화 청춘 소년들아! 관순씨의 본을 받아 나라 위하여 일합시다. 인생은 최귀하요 만물에 영장이니 대의지신 굳게 문쳐 각기 의무를 지킬지라. 예로부터 충의절은 이 나라에 기둥이요, 간인 중에 탐욕자는 만세추명이 한심터라. 부기는 지내가고 공명은 부운이라. 일시허영 부린 지신 추후도 두지 말고, 정의의 바로 하야 이 강산 이 땅 우에 만세영화 빛내기는 여러 청춘들의 책임이라.